



고창군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활력 넘치는 삼락농정 추진

고창군, 지역 관광명소 연계·결합·6차 산업화·명품 관광 육성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군은 민선 6기 전북도의 3대 도정 핵심과제인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중 '보람 찾는 농민, 제 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정'의 삼락농정과 지역 관광명소를 연계·결합하여 6차 산업화하며 명품 관광을 육성하면서 지역 발전의 결실을 만들어가고 있다.

군은 올해 농업 비전을 '다품목 육성으로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활력 있는 농촌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농업경쟁력 확보와 농업인 생활수준 향상, 농식품산업 육성 등에 1113억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가경영안정 등 20여개 사업에 4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여성농업인들이 12만 원 상당의 금액으로 영회관이나 미용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생카드를 제공해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삶에 활력을 얻도록 한다.

또한 복분자 수확기인 6월과 7월 등 농번기에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동급식을 지원한다.

마을회관 등에서 약 40여일 동안 진행되는 공동급식지원은 240여만 원의 부식비와 인건비를 지원해 농번기 여성농업인들의 가사부담을 덜고 영농정보 교환과 주민화합의 효과도 거둘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농식품 유통체계 구축과 농식품 신산업 육성 등에도 힘써 올해 54개 사업에 3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표 농특산물인 고창수박과 복분자, 메론 등을 6차 산업화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고창 농특산물 브랜드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해 tvN방송국 '삼시세끼 고창편'이 높은 시청률 속에 방영되고 각종 예능프로그램 등에 선출산도 립공원과 고창읍성 등 볼거리와 먹거리

리들이 소개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 올해도 농촌관광활성화와 생생마을만들기 등 12개 사업에 334억을 투입해 찾아오는 즐거움이 있고 오래도록 머무르고 싶은 고창을 적극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고창군의 노력은 '보람 찾는 농민, 제 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정'의 전북도 핵심 추진 사업인 '삼락농정'을 실현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농업 분야 또한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추진해 나갈 때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며 "오는 4월 예정인 대한민국 대표 경관농업 '고창청보리밭축제'와 함께 세계유산 고인돌유적, 운곡탐사르습지와 고창갯벌 등 고창군의 풍부한 자원들을 잘 연계·결합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군민들이 소득을 얻는 삼락농정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이 치즈산업의 기반인 낙농가 지원에 적극 나선다.

임실군, 낙농가 지원 적극 나서

3억7700만원 투입... 젖소 산유능력 검정 등 3개 사업 추진

임실군이 치즈산업의 기반인 낙농가 지원에 적극 나선다. 군에 따르면 임실N치즈산업의 뿌리인 낙농업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낙농도우미(헬퍼)지원사업과 젖소 산유능력검정사업, 원유쿼터구입 이차보전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총 3억7700만원을 투입한다.

임실치즈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임실N치즈와 낙농가가 동반성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임실N치즈산업의 성공의 열쇠는 낙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다. 그러나 최근 낙농업은 한·미, 한·호주 FTA발효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유제품 수입 확대와 원유가격의 불

안정, 낙농가의 고령화 등 삼중고에 문을 닫는 낙농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낙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발굴, 추진 중이다.

낙농도우미(헬퍼)지원사업은 낙농가의 도우미를 지원해 착유를 돕는 것이다. 도우미는 3개조 6명으로 구성됐다. 한 달에 두 번씩 착유를 도와준다. 연중 매일 착유를 실시하는 낙농가의 피로감을 크게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은 관내 사육되는 착유우 1,300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우수 혈통확보를 통한 산유량 증대와 원유 품질향상이 가능하다.

원유쿼터 이차보전사업은 관내 낙농가 중 원유쿼터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의 매입에 발생하는 이차에 대한 이차보전을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 해 3.5톤의 신규 쿼터를 확보한 데 이어 올해에는 1톤의 원유쿼터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원유감소 방지와 관내 낙농가 의 자리잡고 있다"며 "때문에 낙농업의 활성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도 낙농업의 소득 향상과 치즈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군민과의 열린 대화 성료

올해 군정 주요계획 소개·의견 수렴 계기 마련

고창군(군수 박우정) 발전과 자치역량을 도모하는 건전한 소통의 장인 '군민과의 열린 대화'가 부안면을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군은 지난달 1일 흥덕면을 시작으로 14개 읍·면에서 실시된 '군민과의 열린 대화'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뜨거운 참여와 호응 속에 다양한 의견 제시와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열린 토론의 장으로 채워졌다고 전했다.

군민과의 열린 대화에서는 지난해 성과를 설명하고 올해 군정 주요계획 전반에 대한 소개와 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의 계기를 마련했다.

14개 읍·면 주민들은 각 일정마다 자리를 가득 채우며 군에 바라는 점, 당면 현안 등 300여건의 건의사항을 제시했으며 군은 담당

부서별 현장 확인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후속조치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박우정 군수는 시종일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며 허심탄회하게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으로 호응을 얻었으며 경로당, 기업체, 귀농·귀촌가정 등을 찾은 현장행정도 펼쳤다.

박우정 군수는 "올해도 군민의 실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한국인의 분향,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을 만드는 활기찬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모든 군민이 골고루 행복한 고창을 만들기 위해 군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경찰, 입체 예방활동 '눈길'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는 느슨해진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집중 발생하는 강·절도 범죄예방을 위한 입체 예방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지난달 25일부터 설 명절 연휴기간동안 주민들의 협공과 귀중품등의 도난방지를 위해 순창군과 함께 '통합 안전망시스템'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 중에 있다.

'통합 안전망시스템'은 재난관리예방을 위해 순창군이 각 마을에 일괄적으로 방송하는 음성송출시스템으로 순창경찰은 군과 협조 이 시스템을 범죄예방에 활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설명절 연휴기간동안 빈집털이 절도발생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입체적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신일섭 서장은 "경철이 일일이 마을을 방문하여 홍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나 통합안전망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자동으로 각 마을로 방송되어 매우 효율적인 예방활동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고창경찰, 졸업식 문화조성 캠페인

고창경찰서에서는 지난 2일 고창고등학교를 시작으로 3일 고창중 등 6개 학교(취학)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학교(학생) 및 패트를 맘 등과 함께 건전한 졸업식 문화조성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졸업식을 맞이한 졸업생들에게 "졸업식 후에는 가족과 함께" "교복을 후배들에게" "말가꾸어 안녕" 등 직접 글씨를 제작하여 수제쿠키와 초콜릿에 부착하여 감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 졸업식 전단지 등을 나누어 주면서 건전한 졸업식 문화 정착을 당부하고 시청률 최고 20%를 넘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쓸쓸하고 찬란한 도깨비' 드라마를 패러디하여 '찬란하고 따뜻한 학교전담경찰관' 판넬을 제작하여 가족과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있는 추억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고창경찰서는 앞으로 졸업이 끝나는 10일까지 고위험 학교를 위주로 건전한 졸업식 문화조성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졸업식 당일 야에는 청소년들이 자주 출입하는 PC방, 노래방, 술집 등을 집중 순찰하면서 청소년 비행 및 탈선을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내달 31일까지

남원시는 6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시설분야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2017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안전대진단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 건축물, 해빙기점검시설 등 6개분야 1,124여개 시설을 대상으로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법·제도·관행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까지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하고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리주체에게 정밀안전점검 및 안전

진단명령을 내려 사전 안전예방을 통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를 토대로 신속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인 취약지역 점검을 통해 행복하고 안전한 남원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뿐 아니라 생활 속의 안전 위태로움 신고를 위한 안전신문고 앱(safe people.co.kr)을 모든 공무원과 시민들이 가입 하도록 홍보하여 안전의식고취 및 안전신고를 통한 시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립도서관, 이용 만족도 향상 노력

SMS서비스 실시 등

임실군립도서관은 문화프로그램 수요조사, SMS(단문메시지)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는 설문조사는 문화강좌 개설에 앞서 군민들의 관심분야를 파악하고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정기간행물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반영하며 임실군청 홈페이지(<http://www.imsil.go.kr/>) 또는 오

수면 소재 군립도서관(☎640-2931)에 방문하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각종 도서관 이용정보를 적극 홍보하고자 지난달 24일부터 도서포준관리시스템과 연동되는 SMS(단문메시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도서 반납예정일, 연체 도서 반납요청, 도서관 행사 알림 등의 정보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도서관은 책만 빌리는 공간이 아닌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운 복합문화공간"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19억원 투입 정책숲가꾸기 사업 추진

남원시는 올해 19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정책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1,250ha의 인공조림지나 천연림에 대하여 조림지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등 나무의 나이에 맞는 사업설계·시공으로 산림자원의 가치제고와 산림재해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매년 정책숲가꾸기사업을 통해 산림보존이라는 본래의 목적 외에도 재해예방, 고급목재생산, 야생 동·식물 서식환경 개선 등 경제·환경적

가치를 높이는것은 물론, 본사업 참여 근로자 연 10,000여명의 고용효과로 일자리창출에도 크게 기여 하고 있다.

또한 사업시 발생한 부산물은 화목사용자의 땀감 등으로 활용해 산물이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숲을 가꾸어 주면 가꾸지 않을 때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20%이상 증가한다며 "지속적인 숲가꾸기기를 통해 건강한 숲을 만듦으로써 산주에게는 산림소득 창출을, 시민에게는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임실군은 만 66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를 대상으로 노인의치(틀니)보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료원은 선착순으로 총 20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노인의치를 비롯한 의치사후관리 등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노인의치제작 가능 여부를 보건료원 구강검진을 통해 확인한 후 인원이 희망하는 관내 치과의원에서 시술 받으면 된다.

강태구 보건사업과장은 "치아가 없어 불편을 겪고 고생하는 어르신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씹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다"며 "언제나 군민과 함께하는 구강건강을 목표로 진료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